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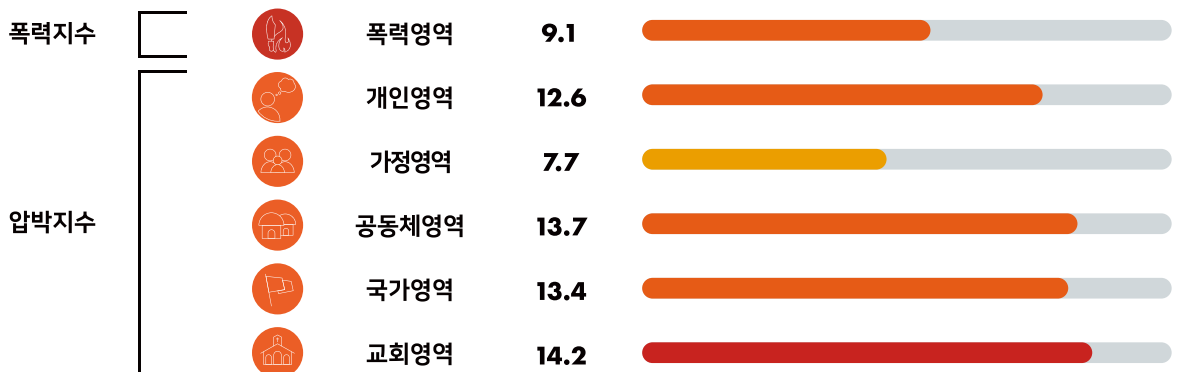
니카라과 (NICARAGUA)

기독교 박해지수
32위



©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니카라과에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부부의 독재가 이어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갈수록 더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협박과 괴롭힘, 감시, 기소를 당한다. 교회와 대학, 자선단체를 비롯한 기독교 기관들은 폐쇄되고 그 재산은 몰수되거나 강제 수용되고 있다. 많은 종교 지도자가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이러한 탄압은 2018년 반정부 시위 이후 더욱 심해졌다. 2021년 11월 선거와 2025년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체계의 조작 이후 탄압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종교계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의 실현과 정치범 석방,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정권은 국적 박탈과 시민권 취소를 수반한 강제 추방, 자의적 구금, 법적 지위 취소 등을 통해 교회를 침묵시키고 그 영향력을 약화하려 한다.

니카라과 (NICARAGUA)

국가 정보

지도자 : 호세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와 로사리오 마리아 무리요 삼브라나 공동대통령 (2025년 헌법 개정에 따름)

인구 : 7,237,000명

기독교인 수 : 6,832,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6,832,000	94.4
무신론/불가지론	231,700	3.3
민속종교	35,400	0.5
기타	137,900	1.8
	합계	100%

출처²

오르테가가 2006년 재집권한 이후 니카라과에서는 민주주의 규범이 꾸준히 약화되고 독재 통치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 연금 개혁으로 촉발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누적된 불만이 원동력이 된 2018년 시민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La Vanguardia, 2019년 10월 9일). 그 이후 법치주의는 약화되었고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도 해체되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은 입법·행정·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사실상 제거했다(BBC, 2021년 11월 9일). 최근 선거에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반대 세력 탄압, 정당 및 각종 위원회의 해산이 잇따랐다. 정부의 억압적인 법률은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 세력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시민권을 박탈하며 해외

지원을 제한한다. 2025년 헌법 개정으로 이러한 독재 체제로의 전환은 더욱 확고해졌다(OACNUDH, 2025년 1월 30일).

WCD 2025에 따르면 니카라과 국민의 약 75.3%가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개신교와 복음주의 공동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위기 당시 가톨릭 지도자들은 중재자로서 국민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자 2019년 3월 대화에서 철수했다(Havana Times, 2019년 3월 8일).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국가의 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회가 지닌 도덕적 권위와 불의를 규탄하려는 태도 때문에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다(Observatorio, 2023년 5월 4일).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 공동체는 괴롭힘과 투옥, 국적 박탈, 강제 추방을 포함한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롤란도 알바레스 주교는 26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국외로 추방되었다(ADF International, 2024년 1월 15일). 마운틴 게이트웨이 소속 인사들을 비롯한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투옥되었다(Confidencial, 2025년 4월 5일). 교육과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해 온 여성 수도회들도 적대적인 조치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국외로 추방되기까지 했다(Nicaragua Investiga, 2025년 1월 29일). 정권의 광범위한 탄압 전략에는 수백 개 종교 단체의 법적 지

¹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위 취소, 재산 몰수, 종교 매체 검열, 공개적인 종교 활동 금지, 경제적 제한 부과, 예배 장소에 인력을 침투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금되었던 많은 종교인이 석방된 뒤 망명하거나 국외로 추방되었지만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전보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그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협박이 더욱 심해졌으며 공개적인 폭력 대신 공포와 검열이 자리 잡았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박해는 니카라과 전역에서 발생하며 모든 지역과 사회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록된 사건은 블루필즈, 치난데가, 에스텔리, 그라나다, 히노테가, 히노테페, 레온, 마사야, 마나과, 마타갈파, 남대서양 자치지역 및 리바스 등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보고되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과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니카라과에서 가장 큰 기독교 집단인 로마 가톨릭교회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할 때 괴롭힘과 감시, 비방은 더욱 심해진다.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정권의 주요 표적이다. 성직자들은 투옥되거나 국외로 추방되거나 가택연금에 처했으며 일부는 목회 활동과 인도주의 활동을 이유로 출국 금지와 법적 위협을 받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

이들은 과거 정권의 지지자나 정부 관료였던 경우가 많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반정부 인사로 간주되어 정권으로부터 유사한 적대 행위에 직면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주로 복음주의·침례교·오순절 계열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정권을 비판할 경우 압박을 받는다. 정부에 정치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박탈, 감시, 허가 거부, 지도자 투옥 등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으며 정권에 정권에 정치적으로 동조하도록 강요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독재적 편집증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 특히 가톨릭교회는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보복을 당한다. 이들은 괴롭힘과 비방, 자의적 구금에 시달리며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힌다. 교회 건물은 훼손되고 예배는 방해받으며 교회의 활동도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 정권은 교회의 공적 활동 기반과 경제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기독교 단체를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지도자들을 국외로 추방해 왔다. 복음주의 교회와 개신교회는 보복을 피하고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보이도록 압박받는다.

공산주의 및 탈공산주의 탄압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은 교육제도와 국가기관을 통해 장려된다. 정권은 감시와 검열, 괴롭힘을 자행하는 동시에 일부 종교 행사와 성경 구절을 선별적으로 이용한다.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정부에 순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조성한다. 가족·공동체·생명 여단(구 CPC)을 통한 지역 단위의 감시도 강화되었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행정적 통제 역시 더욱 심해졌다. 헌법 개정으로 공공질서 보호를 명분 삼아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확고해졌으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관행은 니카라과와 이념적으로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니카라과에는 부패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도 활동하고 있다. 사법제도와 보안군, 공공기관은 뇌물과 강압, 정치적 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르테가의 암살단'으로 알려진 폭력적인 준군사조직과 범죄조직, 산디니스타 폭력 집단은 국가기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반대 세력을 탄압한다. 이들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실현할 독립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공무원을 상대할 때 더욱 취약하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니카라과의 여성과 소녀들은 성별을 이유로 한 종교 박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다.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여성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 또는 정치적 반대자의 여성 가족이다. 이들은 정부 지지 세력의 통제 아래 놓여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 쉽다.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 그리스도인 여성과 소녀들은 그리스도인 남성과 소년들이 투옥되거나 납치되거나 니카라과를 떠나도록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장기간의 이별과 부재로도 고통받는다.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압박 요인: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정부와 친정부 집단이 자행하는 적대 행위의 상당 부분은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언어폭력과 살해 협박, 종교 물품 훼손 등이 포함된다. 정치인들은 니카라과의 가톨릭 성직자들을 ‘살인자’와 ‘쿠데타 모의자’라고 비난하며 이들이 ‘미국 제국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강제로 국외로 피신하거나 체포되어 허위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교회 지도자의 가족들이 수감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한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이는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수감된 지도자들은 성경조차 받지 못하며 많은 경우 가족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압박 요인: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와 가르침 및 의례에 대한 접근 금지
- 사회 공동체 및 관계망과의 접촉 차단
- 직장 및 일자리 및 사업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 부과를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 지역이나 국가에서 강제로 떠나게 함
- 정부에 의한 투옥
- 출국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32	71
2025	30	71
2024	30	70
2023	50	65
2022	61	56

니카라과의 반올림된 전체 점수는 71점을 유지했다. 실제 총점은 폭력 점수가 9.6점에서 9.1점으로 낮아지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공동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압박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여 하락분이 일부 상쇄되었다. 이번 조사 기간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 사건은 이전 연도보다 발생 건수와 대외적 노출 측면에서 덜 두드러졌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정치적 충성을 나타내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적 탄압을 강화했다.. 이는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의 자기검열을 유도하여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조직적인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WWL 2026의 평균 압박 점수는 이전 조사 기간의 12.2점에서 12.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5년 1월 28일:** 경찰은 마나과와 치난데가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클라라 수녀회의 수도원과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약 30명의 수녀를 퇴거시켰다(CNA, 2025년 1월 30일).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 **2025년 4월 18일:** 성금요일에 마나과 대성당에서 진행된 십자가의 길 예식은 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La Prensa, 2025년 4월 18일). 무장 경찰은 출구를 봉쇄하여 행렬이 교회 부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오후 6시 이후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로 예배와 이동의 자유도 더욱 제한되었다.
- **2025년 7월 17일:** 루디 팔라시오스 바르가스 목사는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최고 보안 시설인 라그랑하 교도소로 이송되었다(Premier CN, 2025년 8월 5일). 서둘러 진행된 화상 심리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이 반역과 음모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는 2018년에 자행된 인권 침해를 비판했으며 그가 소속된 교회는 2019년에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수	강제로 국외로 떠난 기독교인 수
2026	7	13	55	55
2025	38	73	317	94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나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정권을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에서 관련 활동을 하거나 투옥 또는 추방된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할 경우 위협이 더욱 커진다. 특별 사이버범죄법은 이러한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마샤야와 마타갈파, 레온에서는 예배 목적이 아닌 모임,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도 음모 활동으로 간주된다. 경찰이 이를 감시하거나 방해하며 참석자들의 차량을 촬영하기도 한다.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은 심문을 받거나 그리스도인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 구금시설에서는 성경이 금지된다. 종교 자료는 학대의 빌미가 되거나 체제 전복적인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가정 영역

공립학교의 아이들은 정권의 이념을 주입받고 대통령 부부를 숭배하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FSLN 상징물을 소지하거나 정치 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받는다. 이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혀 보복당할 위험에 처한다. 이들의 자녀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때로는 교사에게조차 '쿠데타 세력의 후계자'라고 불린다. 자의적 구금과 강제 추방, 감시로 인해 장기간 헤어져 지내는 가족도 많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귀국이 금지되어 가족과 더욱 고립된다.

지역사회 영역

그리스도인들은 거주 지역과 학교, 직장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교회 지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감시가 더욱 심해진다. 이들은 정부 행사에 참석하고 자신의 신앙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압박받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교회에 소속된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퇴학과 학적 말소 또는 체포의 위험에 처하며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이도록 압박받는다. 일부 평신도들은 박해받는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려는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문받는다.

국가 영역

불의를 규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들은 반역자로 낙인찍혀 위협과 감시 또는 기소를 당한다. 2025년 헌법 개정으로 강화된 법률 제1040호, 제1055호, 제1115호, 제1155호와 사이버범죄법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이를 탄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집권당이 정치 영역을 독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또는 시민사회 활동은 쿠데타 시도로 간주되어 범죄화된다.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교회 지도자들을 국민을 속이는 선동가이자 추방당해 마땅한 사람들로 묘사한다. 이는 교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거의 사라졌으며 신자들을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정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회 영역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회와 관련 단체들은 법적 지위 취소와 행정적 방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톨릭 성직자 대부분이 해외로 추방되거나 망명한 상태여서 목회 활동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정치범, 해외로 추방된 성직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포함한 교회 활동은 면밀한 감시를 받으며 자의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방과 기소, 강제 추방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국적이 박탈되거나 시민권이 취소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 주도 행사는 종교 의례를 모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신뢰를 훼손한다. 많은 교회가 이전 조사 기간과 같은 폭력적인 보복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니카라과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니카라과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의 활동은 당국과 주변 지역사회의 감시를 받는다(ICCPR 제17조)
-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들의 활동은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ICCPR 제17조)
-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ICCPR 제2조)

니카라과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2024년 10월 니카라과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행위를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TJP, 2024년 10월 12일). 이러한 조치는 니카라과의 소규모 유대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심화한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의 부재는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폭넓은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니카라과 사역

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에 직면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교회 지도자 돌봄 지원
- 신학 자료 제공
- 목회자 교육 지원
- 신학 과정 이수 지원
- 박해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지원
- 목회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 지원
-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문서 준비 지원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